

오순절 후 스물한 번째 / 종교개혁 505주년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1ST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85 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통일 384)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04 번 종교개혁주일	다같이
*고백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운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Exodus) 17:8-16	염신철 집사
찬 양 Anthem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대
설 교 Sermon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The LORD Is My Banner)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나의 소망”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620 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을 구했던 개혁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부단히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복음적인 삶은 살아내지 못했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거부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개혁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 신앙의 정신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 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개역개정 **출17:15-16**)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it The LORD is my Banner. He said, ‘For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The LORD will be at war against the Amalekit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NIV **Exodus17:15-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30 (주일)	10/31 (월)	11/1 (화)	11/2 (수)	11/3 (목)	11/4 (금)	11/5 (토)
	왕하11,12	왕하13	왕하14	왕하15	왕하16	왕하17	왕하18
본문	딤후2	딤후3	딤후4	딤후1	딤후2	딤후3	몬1
	호3,4	호5,6	호7	호8	호9	호10	호11
	시119:121-144	시119:145-176	시120-122	시123-125	시126-128	시129-131	시132-13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2수 오후7:30)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일2:7-17)
토요 새벽기도회(11/5토 오전6:30)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사100:1-5)

지난 주일(10/23, 강단교류주일) 말씀 – 류상수 목사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 146:1-5)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은 처음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시편 1편의 내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시146:1)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며?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찬양은 ‘꼭조 있는 기도’이며,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13:15)고 말씀했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 할지니라.”(약5:13)는 말씀했으며, (또한)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열매”가 되며, 기도와 더불어 찬양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며, 또 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찬양은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표현했고, 또한 마틴 루터는 “찬양 할 때, 마귀는 쫓겨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